

보 도 해 명 자 료 (‘18. 2. 1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STX·성동조선 결국 다 살린다” (‘18.2.1, 서울경제 인터넷판)

1. 기사내용

- ☐ 정부가 청산위기에 몰렸던 STX조선과 성동조선을 결국 살리기로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
 -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“청산가치가 크다”는 작년의 결론을 뒤집은 것임
 - 삼정KPMG가 작성 중인 중견조선사 컨설팅 보고서에 “조선업의 청산보다 회생에 방점을 두었음”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☐ 동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
- ☐ 현재 컨설팅이 진행 중에 있고, 아무 것도 결정된 바 없음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강감찬 과 장 (044-203-4330)
주세형 서기관 (044-203-4331)